



말씀 · 기도 · 감사 그리고 선교

연중 제29주일

2022년 10월 16일(제555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2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600 - 0177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고해성사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아: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시간	성령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입당_77 봉헌_220, 217 성체_504, 153 파견_61 / 해설_손영채(아네스) 제1독서_한영준(대건안드레아) 제2독서_김태현(대건안드레아)
Narrator_Augustine Sung 1st Reader_Anne Zadra 2nd Reader_Emiliana Lee Prayer_Jina Wu

입당 송 | 시편 17(16),6,8 참조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주님,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

제1독서 | 탈출 17,8-13 Exodus 17:8-13

화답 송 | 시편 121(120),1-23-45-67-8(◎ 2 참조)

Psalms 121:1-2, 3-4, 5-6, 7-8

◎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 Our help is from the Lord, who made heaven and earth.

○ 눈을 들어 산을 보노라. 나의 구원 어디서 오리오? 나의 구원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

○ I lift up my eyes toward the mountains; whence shall help come to me? My help is from the LORD, who made heaven and earth. ◎

○ 그분은 너의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졸지도 않으시리라. 잠들지도 않으시리라. ◎

○ May he not suffer your foot to slip; may he slumber not who guards you: indeed he neither slumbers nor sleeps, the guardian of Israel. ◎

○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그늘, 너의 오른쪽에 계신다.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

○ The LORD is your guardian; the LORD is your shade; he is beside you at your right hand. The sun shall not harm you by day, nor the moon by night. ◎

○ 주님은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신다. 그분은 너의 목숨 지켜 주신다. 나가거나 들거나 주님은 너를 지키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

○ The LORD will guard you from all evil; he will guard your life. The LORD will guard your coming and your going, both now and forever. ◎

제2독서 | 2티모 3,14-4,2 Second Timothy 3:14-4:2

복음환호송 | 히브 4,12 참조

◎ 알렐루야.

◎ Alleluia

○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

○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effective, discerning reflections and thoughts of the heart. ◎

복음 | 루카 18,1-8 Luke 18:1-8

영성체송 | 시편 33(32),18-19 참조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주님은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먹여 살리신다.



우-리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 으 니- 하늘과 땅 -- 을 만드신 분이시다 —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Yong Ah Lee, 최영숙 마리아, 윤정의 알폰소, 이원숙 글라라,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데레사, 배춘자 로사리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극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물리적 거리와 시간의 축적이 한 나라가 겪는 전쟁의 고통과 슬픔을 그저 짧은 외신 뉴스로 만듭니다. 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불편할 뿐 어느새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상을 뒤흔드는 고통과 슬픔이 개인을 넘어 보편적으로 확장되고, 그 보편성에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저 안타까움으로만 표현되고,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면 인간 삶에 대한 어설픈 관조적 태도로 이어집니다. 타인의 보편적인 고통은 그렇게 나에게서 멀어지고 익숙해져 갑니다. 공정과 평등이라는 원리가 앞세운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개인은 타인의 고통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이웃의 아픔에 점점 무뎠습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예의범절로 이해되는 시대가 되어 갑니다.

‘무관심의 세계화’. 로마의 주교로 선출되고부터 끊임 없이 교회와 세상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예언자적 외침입니다. 집과 나라를 떠나 고통 받는 이웃에 대한 무심함, 기후 위기로 위협당하는 생태 환경에 대한 외면, 능력에 따른 정당한 차별로 받아들여지는 경제적 불평등이 모두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경쟁과 차별을 사회적 삶의 전제로 받아들이고 강제되는 현실에서 교황님의 호소는 나날이 작아집니다. 발언의 기회마다 건네는 말씀으로 익숙하게만 들립니다. 그리고 익숙함은 시간과 함께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무관심에 익숙해져 갑니다. 하지만 익숙함을 낯설어해야 합니다. 교황님의 예언자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익숙한 무관심을 낯설게 대해야 합니다.

‘낯설게 하기’. 예술은 낯익은 사물을 낯설게 만들어 무뎠던 감각을 되살리는 도구로, 예술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작품이 아닌 다시 활성화되는 인간의 감각이라고 빅토르 시클롭스키(Viktor Borisovich Shklovskii)는 말합니다.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통해 스쳐 지나친 사물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의미를 알아듣습니다. 사실상 비일상적인 문장, 언어, 색채, 소리, 몸짓 등으로 표현되는 예술을 접할 때면 일상에서와는 다른 감성이 채워집니다. 예술로 비롯되는 ‘낯설어지기’는 하느님과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는 나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세상살이를 낯설게 이끕니다. 그저 그런 삶,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 돌고 도는 보편적 세상살이의 익숙함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익숙해진 나의 시각, 관념, 체험, 상황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낯설게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익숙한 나의 시선이 아닌 낯선 하느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낯설어짐으로써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와 만남을 새롭게 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낯선 시선을 배웁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뜻으로 예수님은 오늘 쉬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루카 18,1) ... 객쩍은 소리만 늘어놓습니다.

김한수 토마스 신부 | 화요일아침 예술학교 교장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제중조절, 통증조절, 체질감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Tri-Valley Orthodontics Jesse H. Ko DMD / Anne Yoon DDS 111 Deerwood Rd. Ste. 185 San Ramon, CA 94583 ph. 925-272-7868 www.tri-ortho.com</p>
<p>N² ART & DESIGN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 탐탁 부동산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민화교실 전통민화 / 모던민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새 성전에서 공동체 성화와 도약 다짐

【캘리포니아】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 (주임 김현국 요한사도 신부)가 9월 24일부터 한 주간 동안 "하느님의 한 가족"(에 페 2,19)이라는 주제로 본당 설립 10주년을 기념했다. 이번 일정은 설립 10주년을 맞은 트라이밸리 공동체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하느님 사랑에 감사드리고, 새 성전에서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첫째 날인 9월 24일 오후 3시에 열린 기념행사에는 트라이밸리 공동체의 10주년을 맞아 공동체를 방문한 춘천교구 김주영 시몬 주교와 오경택 안셀로 신부(춘천교구 성경사목 담당)를 비롯해 북가주 한인본당의 사제와 수도자, 신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둘째 날인 9월 25일 오전 9시, 김주영 주교의 주례로 봉헌된 감사미사에는 본당 신자 230여 명이 참석했고, 28명의 신자들에 대한 견진성사가 거행되었다. 또한, 신·구약 성경 완필자 7명에 대한 축복장 수여도 있었다. 9월 28일 오후 8시에는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신명 30,14)라는 주제로 오경택 신부가 특강을 펼쳤고, 본당 신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주영 주교는 감사미사 강론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읽혀져야 한다."며 하느님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에서 힘을 얻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새 성전에서 본당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공동체에게는 축하 인사와 함께 "공간보다 중요한 것은 지내온 10년이라는 시간이다."라고 말하며 "다음 10년에는 성전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 트라이밸리 공동체의 시간을 어떻게 성화시켰는지 이야기하자."고 권고했다.

김주영 주교는 공동체에 머무는 동안 기념행사와 감사미사 뿐만 아니라 기념 음악회와 특강 등 모든일정에 함께 하였고 주중 평일 미사를 주례했다. 특별히 본당의 연령 단체, 봉사 단체, 신심 단체 회원들과 소규모 그룹으로 여러 차례 만나며 신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김현국 신부는 10주년 기념 일정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한 신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본당 설립 1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더 아름다운 '하느님의 한 가족'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계속 노력하고 기도하자."고 당부하며 소감을 밝혔다.

기사/사진 제공: 트라이밸리 한인 천주교회 홍보부

※기사 출처: 2022년 10월 16일자 미주가톨릭평화신문 3면

새 성전에서 공동체 성화와 도약 다짐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 설립 10주년 기념 미사 및 행사 개최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 10주년 기념미사 및 행사 개최 모습. 신·구약 성경 완필자 7명, 신자 230여 명이 참석했다.

【캘리포니아】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주임 김현국 요한사도 신부)가 9월 24일부터 한 주간 동안 "하느님의 한 가족"(에 페 2,19)이라는 주제로 본당 설립 10주년을 기념했다. 이번 일정은 설립 10주년을 맞은 트라이밸리 공동체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하느님 사랑에 감사드리고, 새 성전에서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첫째 날인 9월 24일 오후 3시에 열린 기념행사에는 트라이밸리 공동체의 10주년을 맞아 공동체를 방문한 춘천교구 김주영 시몬 주교와 오경택 안셀로 신부(춘천교구 성경사목 담당)를 비롯해 북가주 한인본당의 사제와 수도자, 신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둘째 날인 9월 25일 오전 9시, 김주영 주교의 주례로 봉헌된 감사미사에는 본당 신자 230여 명이 참석했고, 28명의 신자들에 대한 견진성사가 거행되었다. 또한, 신·구약 성경 완필자 7명에 대한 축복장 수여도 있었다. 9월 28일 오후 8시에는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신명 30,14)라는 주제로 오경택 신부가 특강을 펼쳤고, 본당 신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주영 주교는 감사미사 강론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읽혀져야 한다."며 하느님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에서 힘을 얻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새 성전에서 본당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공동체에게는 축하 인사와 함께 "공간보다 중요한 것은 지내온 10년이라는 시간이다."라고 말하며 "다음 10년에는 성전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 트라이밸리 공동체의 시간을 어떻게 성화시켰는지 이야기하자."고 권고했다.

김주영 주교는 공동체에 머무는 동안 기념행사와 감사미사 뿐만 아니라 기념 음악회와 특강 등 모든일정에 함께 하였고 주중 평일 미사를 주례했다. 특별히 본당의 연령 단체, 봉사 단체, 신심 단체 회원들과 소규모 그룹으로 여러 차례 만나며 신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김현국 신부는 10주년 기념 일정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한 신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본당 설립 1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더 아름다운 '하느님의 한 가족'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계속 노력하고 기도하자."고 당부하며 소감을 밝혔다.

홍보부

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

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책임 직통: 510-283-6310
CELL: 510-776-5856

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

HARMONY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


Dublin Pediatric Dentistry & Orthodontics
 소아치과 | 교정 전문의
Elizabeth Jihyun Kim, DDS, MS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

COMPASS

AIDEN KIM
 에이튼 킴 (니콜라오)
 REALTOR®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DRE # 01983236





■ 10월 주요 전례 일정

- 10월 23일(주일): 예비 신자 교리반 시작

■ 2022-2023년 예비 신자 교리반 모집

- 첫 모임: 10월 23일(주일), 오전 11시
- 교리 기간: 10월 23일(주일) - 2023년 4월 2일(주일)
- 세례식: 2023년 4월 8일(토), 파스카 성야 미사 중

■ 성 가브리엘 복사단 및 부모 모임

- 일시 : 10월 23일(주일)
부모 모임: 오전 11시 - 오후 12시
복사단 모임: 오후 12시 - 오후 1시
- 장소: Room A
- 문의: 송수경 이레네 (925-577-6404)

■ 성모회 11월 공동구매 안내

- 품목: 참기름, 들기름, 고춧가루, 건나물, 건어물, 곡류, 매실엑기스 등
- 주문: 성모회 조장, 요아킴안나회 회장, PTA회장 등 단체장
- 소속단체가 없으신 분은 성모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성모회장(박경희 실비아, 925-286-5815)
- 주문 마감: 10월 19일(수)
- 픽업 예정: 11월 3일(목) 예정(추후공지)

■ 선종 봉사회 회원 모집

- 돌아가신 연령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선종 봉사회와 함께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연락처: 김형근 어거스틴(925-918-3979)

■ Food Drive for Thanksgiving

- Thanksgiving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일학교와 함께 하는 나눔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내용: 상하지 않고 저장 가능한 품목, canned food, 씨리얼, 파스타 등 도네이션
- 일시: 11월 6일(주일) - 11월 13일(주일)
- 장소: St.Elizabeth 성당입구 도네이션 빈
- 문의: Luke Chae(925-963-6175)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2441	\$415	\$3200	\$300	\$300	\$6656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고건철(10-12), 김선기(4-10), 김지용(10), 김흥기(10-12), 남석훈(10), 박소현(7,8), 서은식(1,2/2023), 오택만(9), 이희열(10,11), 하창완(10)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고건철(10-12), 김선기(4-10), 남석훈(10), 이희열(10,11), 하창완(10)

- Bishop's Appeal

고건철(10-12), 김선기(4-10), 남석훈(10), 이희열(10,11), 하창완(10)

- 도넛봉헌: 이 정 아델라

하성곤 요제프 / 채은진 프란체스카

- 건축헌금: 김선기, 김지용, 두신, 박찬호



모든 이들에게 열린 교회를 위하여 For a Church open to everyone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하여 용감하게 나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언제나 공감대를 이루는 분위기 속에서 연대와 형제애, 환영의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We pray for the Church; ever faithful to, and courageous in preaching the Gospel, may the Church be a community of solidarity, fraternity and welcome, always living in an atmosphere of synodality.

■ COVID-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 집에 머물시다.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합시다.
-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킵시다.

■ 고해성사 시간 및 본당 신부님 면담 안내

- 주일: 오전 9시 - 9시 25분
- 평일(화-목-금): 오전 9시 - 9시 25분
- 면담: 사무실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